

모잠비크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의견	13

I. 일반개황

면적	799천 km ²	GDP	166억 달러 (2014년)
인구	26.5백만 명 (2014년)	1인당 GDP	626 달러 (2014년)
정치체제	공화제(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Metical (MZN)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33.3 (2014년)

- 아프리카 남동부 연안에 위치한 모잠비크는 한반도의 3.6배에 달하는 국토면적과 26.5백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과 접경하고 있음.
-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최근 FDI의 유입이 급증하는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양호한 경제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인당 GDP가 626달러('14년)에 불과한 최빈국으로 대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인프라 구축, 자원 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한 자금소요로 GDP 대비 외채규모가 높은 수준임.
- 정치적으로는 집권여당인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체제 아래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빈부격차 심화와 장기집권으로 누적된 불만이 잠재적인 사회불안 요소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FDI 유입 확대에 힘입어 7% 대의 견실한 경제성장세 전망

- 모잠비크는 탄광 및 운송 인프라 개발, 최근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초대형 가스전의 개발로 인한 FDI의 유입 증가 등으로 2014년에 7.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FDI 유입규모(억 달러) : 10.1('10) → 26.6('11) → 56.3('12) → 59.4('13)

- 향후에도 탄광업 부문의 성장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 자원개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7%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EIU는 2015년 1~2월의 대홍수로 인한 농업 부문 생산량 감소, 수송 인프라 파괴 등으로 인해 2015년에는 전년에 비해 다소 하락한 7.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대규모 정부지출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 기조 지속

- 재정수지는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사회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꾸준한 지출 증가로 만성적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규모는 -10.4%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공공보건과 교육 부문에 대한 투자, 사회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공공 부문 임금 인상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높은 경제성장률 영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는 안정적 기조 유지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0년 한 때 10.3%까지 급등하여 유혈 시위를 야기하였으나, 이후 안정세를 보여 2014년에는 7%의 높은 경제성장률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전년과 유사한 4.6%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5년에는 전력 관련 세금 증가 및 Metical화 평가절하*가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 효과를 상쇄하여 5.6%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Metical화는 2013년 말 30.1MT/US에서 2014년 말 33.6MT/USD으로 평가절하되었으며, 2015년 중 건설한 경제성장률과 달러 강세 유지로 인해 평가절하 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경제성장률	7.4	7.1	7.4	7.5	7.2
재정수지/GDP	-5.0	-4.0	-2.8	-10.4	-8.0
소비자물가상승률	10.3	2.1	4.2	4.6	5.6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자원 부문의 FDI 증가로 광업에 대한 의존도 증가

- 알루미늄, 석탄 등 광물자원 및 천연가스 수출 증가, 자원 부문 개발을 위한 FDI 유입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어, 국제적인 자원수요 또는 FDI 유입 감소시 경제성장 둔화가 불가피함.
- 과거 수출품목은 새우, 캐슈너트 등 농수산물인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자원 부문의 개발로 알루미늄, 석탄, 천연가스 등이 총수출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농업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등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광업 부문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광업에 대한 의존도는 심화될 전망이다.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로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 증대

- 모잠비크는 다양한 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내전으로 인한 탐사 미실시, 제도적 기반 부족, 낙후된 인프라 등으로 자원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인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음.
- 현재 채굴되는 주요 광물은 알루미늄, 티타늄, 석탄, 금 등이며, 철광석, 우라늄, 코발트, 니켈, 구리 등도 채굴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주요 외국계 광업회사로는 남아공 Anglo-American, Southern Mining, 호주 BHP Billiton, 브라질 CVRD, 영국 Pan African Resources 등이 있음.
- 약 16억 달러가 투자된 Moatize 석탄 광산의 채굴 개시로 2016년경에는 석탄이 알루미늄을 제치고 제1의 수출광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됨.

□ 초대형 가스전의 발견으로 신흥 자원부국으로 부상

- 초대형 가스전의 연이은 발견으로 신흥 자원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FDI 유입액이 2005년 1억 달러에서 2013년 59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천연가스 액화(Gas-to-Liquid), 석유화학 등 관련 산업의 육성과 LNG 수출을 위한 설비투자 본격화 등 연관 산업의 발전은 모잠비크의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2005년부터 미국 Anadarko Petroleum社, 이탈리아 ENI社 등 세계 메이저 석유업체들의 탐사작업으로 북서부 해양지역 로부마 분지(Rovuma Basin)의 제1, 4광구에서 2011년~2012년에 걸쳐 대규모 가스전이 확인되며 개발에 활기를 띠고 있음.
- 2013년 기준 천연가스 매장추정량은 약 4조 2,000억 m³이며, 우리나라의 석유가스공사가 2013년에 약 2,000억 m³(우리나라의 약 5년간 사용량)의 매장량을 추가 발견하는 등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정책성과

□ 인플레이션 압박 속 물가안정 유지

- 모잠비크 중앙은행(BDM)의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정책과 FDI의 유입으로 물가상승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나, 식료품 수입가격의 하락, 환율변동 등을 통해 안정적인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음.

* BDM은 기준금리를 2012년 15%에서 2014년 11월 7.5%까지 인하하였음.

□ 중간소득국 진입을 위한 'Agenda 2025' 추진 계속

- 모잠비크 정부는 독립 50주년이 되는 2025년까지 중간소득국(middle income country) 진입을 목표로 하는 'Agenda 2025'를 발표하였으며, 동 계획에는 경제발전 외에도 교육, 사회자본, 의료복지 등 생활수준 향상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음.
- 또한, 5개년 정부 계획(PQG), 빈곤감축 실행계획(PARP) 등 'Agenda 2025' 수행을 위한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PQG는 발전소, 도로, 농촌 지역 상수시설 건설 등 경제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PARP는 행정서비스 개선, 부정부패 척결, 농수산업 부양, 고용률 증대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음.

□ IMF의 PSI에 따른 경제정책 관리

- 정부는 IMF의 PSI(policy support instrument)*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 관리, 외채관리 전략 수립, 금융 부문 개혁 등도 추진하고 있음.
- IMF는 2014년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모잠비크는 PSI가 제시하는 적정 수준의 목표치를 준수하고 있으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힘.

* PSI는 IMF가 원조가 필요 없는 저소득국가의 빈곤 감축,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 금융 관련 정책조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

- IMF는 구조개혁을 위해 대외원조를 줄이고 비양허성 차관을 늘리는 부채 관리와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광업 부문의 투명성 증대를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 노력

- o 정부는 광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국제 기준인 EITI(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 2012년 10월 규정 준수국가(EITI Compliance)로 승인되었으며, 매년 보고서를 통해 규정 준수실적을 점검받을 예정임.
- EITI 가입 요건은 투자회사의 채굴산업 관련 지출의 내역과 이들로부터 수령한 정부의 모든 수입의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 준수국가로 승인될 경우 국제사회에 자원 부문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로 작용함.

□ 열악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미흡

- o 세계은행의 2014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에서 189개국 가운데 139위를 기록하여 2013년(142위)보다 3단계 상승하였으나,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승인 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부문에서 순위 하락 또는 유지를 나타내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3. 대외거래

□ 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자금 지출로 경상수지 적자 기조 지속

- o 모잠비크는 광산 및 LNG 등 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 확대, 인프라 건설 기술 도입 등으로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기조가 지속되어, 2014년에도 GDP 대비 -36.7%의 적자를 기록함.
- o 최근 유가하락이 자본재 및 원자재 수입가격을 하락시켜 20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9.7%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FDI 유입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은 꾸준한 증가세 유지 전망

- 외환보유액은 자원개발, 운송, 통신, 관광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꾸준한 FDI 유입에 힘입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함에 따라, 2011년 약 20억 달러에서 2014년 말 28.5억 달러까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되며, 2015년에도 30.3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한 외채규모 증가 관련 관찰 필요

- 모잠비크는 잇따른 가스전의 발견으로 자원부국으로 부상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함께 외환보유고 증가와 6~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외채상환능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임.
- 그러나 자원개발, 공공부문 개혁,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막대한 자금 소요로 외채규모가 급증하여 2014년 말에는 GDP의 81.4%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되며, D.S.R.은 2014년 말 기준 12.9%로 다소 높은 수준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1	2012	2013	2014 ^e	2015 ^f
경 상 수 지	-2,973	-6,373	-5,892	-6,131	-5,512
경 상 수 지 / G D P	-21.9	-42.9	-37.8	-36.7	-29.7
상 품 수 지	-2,249	-4,048	-4,357	-4,377	-3,176
수 출	3,118	3,856	4,123	4,105	4,484
수 입	5,368	7,903	8,480	8,482	7,661
외 환 보 유 액	1,992	2,304	2,607	2,846	3,028
총 외 채 잔 액	7,184	8,212	10,442	13,897	17,917
총 외 채 잔 액 / GDP	57.3	57.5	68.2	81.4	95.9
D S R	18.3	11.0	10.5	12.9	13.7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4년 10월 선거 결과, 민주전선(FRELIMO)의 장기집권 체제 유지

- 현 집권여당 민주전선(FRELIMO)은 1975년 모잠비크를 포르투갈로부터 독립시킨 Samora Machel을 시작으로, 현 대통령인 Filipe Nyussi에 이르기까지 40년간 여당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고 있음.
- 2014년 10월 15일 총선 결과, FRELIMO는 총 250석 중 144석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야당인 민족저항(RENAMO)은 89석을 차지하였고, 모잠비크 민주운동(MDM)은 17석을 차지함.
- 국방장관 출신인 Filipe Nyussi 대통령은 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37%를 얻는 데 그친 야당 후보 Afonso Dlakama에 낙승, 2015. 1. 15일 취임식을 가졌으나, Dlakama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더 많은 표를 얻은 중부와 북부 지역에서 자치정부를 선포할 것이라고 위협하였음.

□ 집권세력의 이권 독점 및 부패, 민주화 정체에 대한 우려 증가

- FRELIMO의 장기집권으로 인한 집권세력의 이권 독점과 부정부패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민주화 정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음.
- 모잠비크는 EIU의 2014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발표에서 10점 만점에 4.66점으로 167개국 가운데 107위를 기록, 2012년(102위)과 2013년(104위) 대비 하락함.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소요/사태는 없으나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불안 우려 잔존

- 사회안정을 해칠 만한 소요 등의 발생사실은 없음. 다만, 높은 경제성장의 과실이 빈곤 감소로 연결되지 못하여 고질적인 빈부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소득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사회불안의 우려가 있음.
- 정부는 빈곤 감소정책의 일환으로 인력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을 통한 양극화된 소득격차 해소와 부정부패의 척결이 정부의 핵심 해결과제로 남아 있음.
- 청년 일자리 창출 산업인 농업은 소규모인 데다 생산성이 낮고, 중소기업 부문도 만연한 관료주의(red tape), 열악한 기업환경 등으로 고용창출에 제약을 받고 있음.

3. 국제관계

□ 서방 세력 및 자원 수입·투자국과의 관계 강화

- 독립 후 구소련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80년대 후반 공산체제가 붕괴되면서 미국, 일본 및 서유럽 국가와의 관계 강화에 주력해 왔음.
- 2000년대 들어 서방 원조공여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철도, 광업 부문의 주요 투자국인 중국, 브라질, 인도, 호주 등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왔으며, 가스전 발견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의 주요 LNG 수입국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아베 총리는 2014년 초 아프리카 순방 중 모잠비크를 방문하여 700억 엔의 공적개발원조(ODA) 제공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주변 국가와도 긴밀한 관계 유지

- 인접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교역, 투자, 관광, 이민 등 전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모잠비크는 그동안 남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SADC)의 주요 일원으로서 남아공과 함께 역내 평화유지를 위한 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왔으며, 특히 짐바브웨의 경제붕괴 사태와 관련하여 그 역할이 부각되기도 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 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 보유

- 고채무 저소득국(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 HIPC) 이니셔티브에 따라 1999년과 2001년 각각 37억 달러와 30억 달러의 공적외채를 탕감받았고, 2006년에도 다자간 채무탕감 이니셔티브(Multilateral Debt Relief Initiative: MDRI)의 체결로 29억 달러 규모의 채무를 탕감받는 등 세 차례의 외채탕감 및 리스케줄링 경험이 있음.
- 2014년 3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 앞 지원잔액은 단기 1.1억 달러, 중장기 5.7억 달러이며, 연체는 없음.

□ 외채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필요

- 공공부문 개혁, 인프라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따른 막대한 자금 소요로 인하여 외채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자원개발에 대한 외국인투자, 높은 경제성장률, 외환보유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14. 5)	D1 (2013. 8)
OECD	6 (2015. 1)	6 (2014. 1)
S&P	B (2014. 2)	B+ (2013. 9)
Fitch	B+ (2014. 11)	B+ (2014. 5)
Moody's	B1 (2013. 9)	-

* OECD 등급 원용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93. 8. 11 (북한과는 1975. 6. 25)

□ 주요협정: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10)

□ 우리나라와의 2014년 교역규모는 1억 3,022만 달러

- 우리나라의 대 모잠비크 수출은 전년 대비 9.7% 증가한 1억13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수입은 전년 대비 98.9% 증가한 2,892만 달러를 기록한 바, 총 교역규모는 전년과 유사한 1억 3,022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표 4> 한·모잠비크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구 분	2012	2013	2014	주요 품목
수 출	44,025	92,375	101,296	합성수지, 계면활성제, 자동차 등
수 입	66,373	14,537	28,924	석탄, 동제품, 기호식품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 정부, 모잠비크와의 협력관계 강화 추진

- 우리 정부는 2012년 7월 모잠비크 광물자원부와 산업자원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 모잠비크를 아프리카 54개국 중 '우선 경험 전략국'으로 선정한 바 있음.
- 2013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수도 마푸토에서 모잠비크 가스 공급 사업 배관망 착공식을 가졌음.
 - 가스공사는 현지 국영가스공사(ENH)와 공동으로 합자회사(ENH-KOGAS, SA)를 설립하였고, 2013년 3월부터 15개월간 가스배관(59km) 공사 후 2034년까지 20년 간 공급설비를 운영하여 천연가스를 현지 공급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모잠비크를 산업·자원 협력의 성공 모델로 삼는다는 계획으로 2013년 7월 정부, 국내 주요 기업, 금융기관 등 관계자 50명 규모의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하여 제1차 한-모잠비크 산업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또한 2013년 11월 KOTRA 무역관을 마푸토에 신규 개설하여 현지 마케팅 인프라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고 있음.
- 외교부는 최근 양국 정부의 경제협력 사업과 한국 대기기업의 현지 진출 증대로 외무 업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2013년 10월 마푸토에 대사관을 개관하였음.

□ 양국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대 모잠비크 투자는 2011년 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5만 달러를 투자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가스제조업 및 배관 공급업, 수산물 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2014년 말 현재 5개의 투자법인, 총 4,146만 달러의 투자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모잠비크의 대 우리나라 투자는 아직까지 없음.

V. 종합 의견

- 모잠비크는 1인당 GDP가 626달러(2014년 추정)로 여전히 최빈국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농업, 광업 등의 호조와 자원 부문의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FDI 유입 증대 등에 힘입어 연 6~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향후에도 풍부한 광물자원, 천연가스의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입 지속, 수출 증대 등으로 7%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되는 등 자원개발의 가속화를 기반으로 향후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됨.
- 정치적으로는 모잠비크 독립운동을 주도한 민주전선(FRELIMO)이 오랜 지지기반을 바탕으로 장기집권 체제 속에서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자원개발에 따라 외국인투자 및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는 등 외채상환능력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GDP 대비 과중한 외채부담, 높은 D.S.R.을 고려할 때 향후 외채규모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책임조사역 고영애(☎02-6255-5720)
E-mail : kya321@koreaexim.go.kr